



아이티 지진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주교좌성당의 모습

아이티 지진 이후 9개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아이티 장기재건사업은 계속됩니다

지난 1월 12일 발생한 아이티 강진은 한 국가에 발생한 재난으로는 너무 심각하고 피해가 컸던 재난입니다. 이 정도 대규모의 지진에는 어떤 나라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구촌 최빈국 아이티가 받은 영향은 말 그대로 재앙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취약했던 사회기반시설조차 지진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고, 사상자가 30만 명, 이재민만 300만 명(전체인구의 1/3)을 넘었습니다.

그 어떤 재해보다 심각하고 피해가 치명적이었던 아이티 지진이었기에 지진발생 초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전례없는 대규모의 긴급구호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아이티는 식량, 식수, 의약품 등 기본적인 구호물품과 난민 캠프 설치와 같은 긴급구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건과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복구율은 10% 미만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아이티가 완전히 복구되는데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아이티 1차 현장방문(4/29~5/7)을 통해 아이티 카리타스와 함께 중장기 지원방안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중장기재건사업의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다시 아이티 방문(9/8~17)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이티 긴급구호 성금은 국제 카리타스의 1차 긴급구호를 위해 사용됐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해주시신 성금은 1차 긴급구호 기간 3개월을 마무리 짓고 중장기 재건사업을 진행하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은 아이티 주민들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쓰여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귀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티의 희망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희망을 희망으로만 그치게 하지 않고 구체적 현실로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캠프촌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지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를 두번째 방문하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얼마만큼 복구 되었을까?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지만 저의 예상과 달리 아이티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수선하던 공항을 나와 차를 타고 아이티 카리타스로 이동하며 본 거리는 4개월 전 아이티 첫 방문 때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보았던 무너진 건물의 잔해는 흉물스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진 후 8개월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을 생각을 하니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미

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들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지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의문점들이 내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행이 첫번째로 방문한 곳은 델마 거리에 있는 한 캠프촌이었습니다. 이곳의 모습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천막이 모자라 양철과 나무를 이리저리 이어서 지은 집, 그 안에서 우두커니 일행을 바라보는 아이티 사람들의 눈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젊은이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 포르토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티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의 현실 역시 어둡기만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진 직후에는 세계의 각 정부 및 민간단체로부터 구호식량과 구호품이 아이티 주민들에게 지급되었지만 긴급상황이 지난 5월부터는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아 이들의 아픔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임시 천막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하루 5달러를 받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파느라 분주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하는 아이티 국민들을 보았을 때 아이티에도 분명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희망을 희망으로만 그치게 하지 않고 구체적 현실로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이티 국민들은 하루빨리 안정된 주거환경을 확보해야 하며, 학교를 잃은 많은 학생은 다시 빨리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학교 재건 사업을 우선 순위의 장기재건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이티 주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본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아이티의 희망은 진행 중입니다.

글 • 국제협력부 김대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아이티 긴급구호 지원현황 중간보고

- 1월 28일** • 아이티 1차 긴급구호금 6만 달러, 천주교 서울대교구 2차헌금 2억 5천만 원 전달
- 2월 22일** • 아이티 긴급구호금 22만달러 추가 지원
- 4월 29일 ~ 5월 7일** • 초기 긴급구호 지원 점검 및 장기재건사업 지원방안을 위한 1차 현장 방문
- 9월 8일 ~ 9월 17일** • 장기재건사업 현장조사 및 지원논의를 위한 2차 현장방문

아이티 긴급구호 계좌안내

- **우리은행** 454-005324-13-045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후원문의** 02.774.3488

49,139 명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0년 9월 30일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512-03-004088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의 전화,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거듭나

27주년을 맞는 나눔의 전화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옮겨오면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예방상담전화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9월 29일 창립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전화상담이라는 자원봉사 활동분야가 불과 몇 개 있지 않았던 시절,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화해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갖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1983년 9월 5일 나눔의 전화를 개설하여 올해로 27주년을 맞았습니다. 상담원 전원이 자원봉사자인 나눔의 전화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롯이 하느님께 봉사하는 마음,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가고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상담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27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눔의 전화는 올해부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옮겨오면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예방상담전화로 거듭났습니다. 자살예방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상담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난 7월 나눔의 전화



15기 신규상담원을 모집해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생명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 2011년부터 상담활동을 시작하는 나눔의 전화 15기 신규상담원들은 생명사랑을 실현할 것이며 이들을 통한 나눔의 전화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올해로 27주년을 맞는 나눔의 전화는 이를 기념하고자 9월 29일 가톨릭회관에서 창립기념미사를 드렸습니다. 기념미사 후에는 시상식을 통해 봉사자들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들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500시간, 1000시간, 1500시간, 2000시간 봉사한 9명의 봉사자와 25년간 나눔의 전화와 함께한 2명의 봉사자에게 감사장이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25년 근속시상의 주인공인 나눔의 전화 3기 이난희님, 이순자님은 오랜 시간 묵묵히 봉사자로서 나눔의 전화와 함께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수상의 기쁨과 함께 정년을 앞두고 있어 25년을 함께한 나눔의 전화 봉사자로서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남은 시간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글 • 생명운동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서지영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나눔의 전화 15기 전화상담 교육 심화과정 개강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와 나눔의 전화에서 실시한 15기 전화상담봉사자 기본 교육이 29일 10회기를 끝으로 종강을 했습니다. 교육 수료생들은 9월 30일 면접을 치른 후 10월 6일부터 자살예방상담 심화과정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생들의 자살예방 전화상담 전문가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www.생명친구.org

- 상담전화 1599-3079(생명친구)
- 상담시간 (월~토) 10시~21시30분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80-30797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

● 9월 생명이눔 캠페인 현황

* 단위:명

날짜	장소	장기	조혈모세포
9/6	성신여자대학교	6	59
9/8	이화여자대학교	13	100
9/9	가톨릭대학교	15	106
9/10	일산종합사회복지관	12	*
9/16	덕성여자대학교	*	76
9/17~9/18	대한민국나눔대축제	9	23
9/25~9/26	마천동성당	72	*
8/26~9/16	한마음한몸장기증센터	182	42
총계		228	383

● 백혈병 · 난치병어린이 지원사업

* 단위:만원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김***(남, 3개월)	신생아호흡곤란증 외	서울성모병원	900
허***(남, 만6세)	황문근육종	국립암센터	900
김***(여, 5개월)	신우요관이행부협착	서울성모병원	500

● 장기이식대기자 지원사업

* 단위:만원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김***(남, 만2세)	전격성간염, 뇌사자간이식	서울대병원	1,000
양***(여, 만41세)	간경화, 뇌사자간이식	순천향대부천병원	1,000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국제협력

● 제 4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 포럼 참여

국제협력부는 9/6~9/11까지 광주에서 열린 '제 4회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 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청년의 창의성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22개국에서 온 44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를 위해 토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본부는 작년부터 포럼의 일부인 아시아청년기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제출한 아시아 지역사회 내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아시아 청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생애 첫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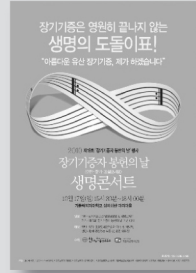
- 장예연 마리아 디 로사
(2008.12.15 생 父장훈태/母정소희),
100만원(백혈병 · 난치병 어린이들기)

제18회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생명콘서트>

'아름다운 유산 장거증, 제가 하겠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장기(헌안 · 장기 · 조혈모세포)기증자 가족과 봉헌을 약속하신 분들을 모시고 한 해동안 소중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몸과 마음을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기기증자 가족과 장기기증 및 생명사랑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하오니,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 일시 10월 17일 (일) 15:30 ~ 18:00
- 장소 가톨릭의과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
- 일정 1부 - 장기기증관련 영상물상영 및 생명콘서트
2부 - 제18회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기념 미사

함 · 께 · 하 · 는 · 사 · 회 · 사 · 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 34주년 기념미사
지난 9월 27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서른네 돌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념미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뜻 깊은 시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7회 나눔은 희망입니다

김치, 쌀 나누기 행사 안내

본 회에서는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후원으로 빈첸시오회와 함께 서울대교구 각 본당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복지대상자에게 편만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쌀과 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일시 11월 21일 (일) 8:00 ~ 17:00
- 장소 서울대교구 교구청 별관 지상 주차장
- 내용 김장담그기 행사, 쌀·김치 배분행사
- 지원가정 약 2,000가정 (쌀20kg 1포, 김장김치10kg 1박스)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0-91459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전화 02. 727. 2239

제14기 가톨릭사회복지학교 안내

- 일시 10월 13일~12월 1일
매주 수요일 저녁 7:30~9:30 (총8회)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4층 426-1호
- 대상 본당, 사회사목분과 위원 및 제단체회원, 일반신자, 본회 등록단체 종사자

사랑더하기 희망나누기 사회복지기금마련

카리타스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 일시 11월 15일 (월) 늦은 7시30분
- 장소 명동대성당
- 티켓 1만원
- 후원 우리은행 1005-900-91459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환경사목위원회

창조보전축제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숨쉬를 알리네'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최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양평 정하상바오로수도원에서 각 교구 창조보전연대 단체 활동가, 생태적 삶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전기와 석유 사용하지 않고 살기, 생명의 강 걷기, 강변 작은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